

전쟁 중에 피어난 사랑스러운 진실의 꽃

〈안네의 일기〉



지은이 - 안네 프랑크
 옮긴이 - 홍경호
 펴낸곳 - 문학사상사

안네라는 이름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안네의 일기〉도 물론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을 아직 안 본 사람들을 위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에 한 번 읽었다 해도 다시 한 번 읽기를 권합니다. 어른들의 전쟁이라는 슬프고 참혹한 역사 속 비참한 책장 뒤의 은신처에서도 사춘기의 작은 여자가 어떻게 솔직하고 예쁘게 자신을 성장시켜갔는가를 보여준답니다. 지구 위에 살면서 안네라는 친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해요.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2차대전 당시 죽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공포 속에서 선물 받은 일기장 속에 은신처의 살아가는 이야기, 함께 피해 살고 있는 판 단씨 가족의 아들 페터에게 싹트는 사랑의 감정, 엄마와의 갈등 그리고 사춘기 소녀가 겪어내는 모든 이야기를 적어 솔직하게 다 들려줍니다. 결국에 발각되어 수용소에 가기 직전까지로 일기는 끝나고 안네는 수용소에서 티푸스로 앓고 예쁜 삶을 마감하지만 우리에게 영원까지 남아있게 되었어요. 일기장과 함께,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엄마가 사주신 〈안네의 일기〉를 읽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 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안네처럼 이름도 붙여주었었지요. 아, 안네의 일기장은 키티라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글/김영숙(시인, 해오른누리기획실장))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1.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이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소식지 “우리들숲”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1. 이유는?

3.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4. 보다 나은 소식지를 위해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푸른숲선도원 소식지 '우리들 숲'은 매달 8,000부씩 제작하여 3,000여명의 지도교사, 2,000여개의 푸른숲선도원 활동교과를 포함한 기관, 단체 등에 DM으로 발송됩니다.